

융합교육, 참여 학과 과목 나열 넘어 연계 수준 높여야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융합전공 7년, 현황 점검

1화: 융합전공, 무엇이 문제인가

2화: 융합전공, 타 대학 우수 사례

3화: 융합전공, 나아가야 할 방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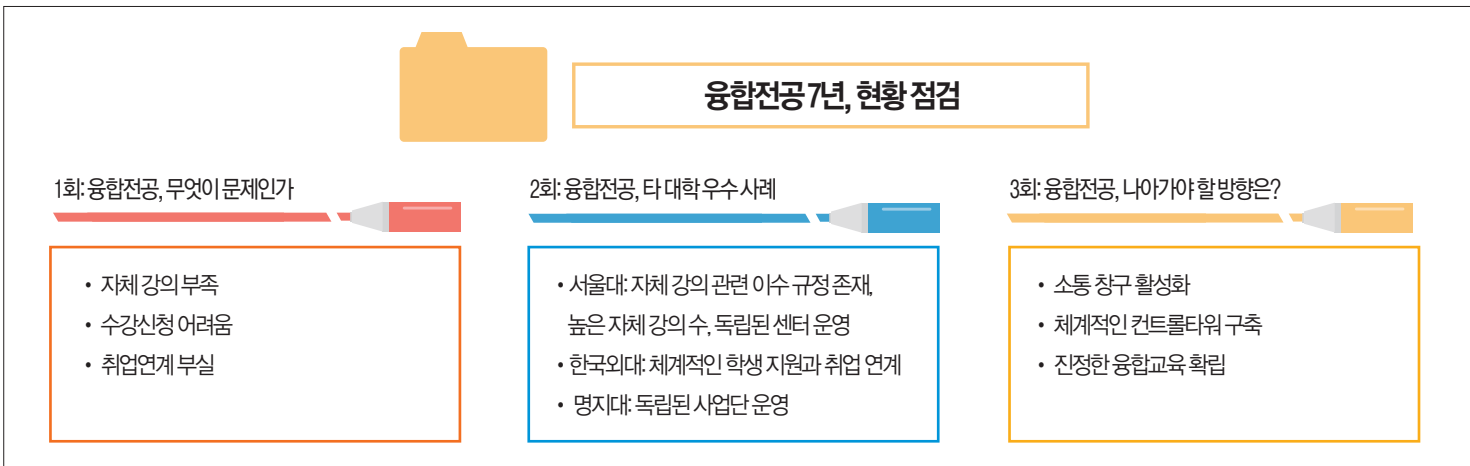
#지난 회차에서는 융합전공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서울대, 한국외대, 명지대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3회 차에선 우리학교 안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융합전공 사례를 알아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학생과의 소통 창구 활성화 필요

대부분 융합전공 홈페이지와 SNS는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아 홍보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융합전공 개별 홈페이지는 운영되고 있어도 정보 공유가 활발하지 않다. 4D아트융합전공, 아트&테크놀로지융합전공을 제외한 모든 융합전공은 SNS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 학생들이 관련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 소통이 미흡하지만 아트&테크놀로지융합전공은 활발한 소통 창구를 구축했다. 해당 융합전공은 매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종 SNS를 통해 학생과 소통한다.

아트&테크놀로지융합전공 담당 교수 김혜경(디지털콘텐츠학) 교수는 “매 학기 간담회를 실시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아트&테크놀로지 어워드’라는 행사를 개최해 학생 과제들 중 심사를



통해 상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트&테크놀로지융합전공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전공 홍보, 졸업 작품, 행사 스케치 등을 공유하기도 한다.

김 교수는 “학기마다 학생들이 전공 홍보영상을 제작해 해당 내용을 유튜브, 인스타, 비한스(Behance)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재정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돼야

융합전공 자체 교과목이

더 많이 개설돼 학문분야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갖게 되면 좋을 것 같다

우리학교 융합전공은 주관 단과 대학에서 교육과정 관리 및 강좌 개설, 학생 선발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국제캠 학사지원팀 성혜인 주임은 “융합전공 운영을 주관 대학에서 담당하고 있어 주관대학의 소속 학과와 동일하게 융합전공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융합전공 담당교수는 전통적인 학과 운영 방식만큼의 관리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K-퍼포밍아트융합전공 담당교수 이은혜(연극영화학) 교수는 “담당 조교가 없어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자료를 교수

가 스스로 제작해 학생들에게 공유를 해야 한다”며 “본 전공의 전임을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융합전공 홍보에만 주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트&테크놀로지융합전공 김 교수는 “향후 융합전공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융합전공 자체 교과목이 더 많이 개설돼 학문분야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갖게 되면 좋을 것 같다”며 “그렇다면 그에 적합한 행정·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관학과 또는 참여학과 소속 교수들은 원 소속학과가 있기 때문에 융합전공에 대한 관심이 원소속학과만큼 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학사지원팀 성 주임은 “융합전공 지원 개선과 관련해 융합전공 지도 교수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주도적 학사제도 홈페이지 운영 등 본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으나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문 간 연계성 높인 진정한 융합 교육 이뤄져야

글로벌엔지니어링 융합전공과 글로벌문화기술 융합전공은 각각 공대와 외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소용)과 외대에서 인문계와 이공계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엔지니어링 융합전공은 트랙당 자체 강의가 3개에 불과하며 글로벌문화기술 융합전공은 자체 개설 강의가 전무해 실질적인 융합 교육이 부족한 상황이다.

글로벌문화기술 융합전공 담당 교수인 김상욱(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교수는 “테크놀로지와 디지털콘텐츠라는 강의는 디지털과 영미문화를 융합해서 배울 수 있는 융합 교육의 좋은 사례지만 그 외의 과목들은 기존 학과 과목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컴퓨터공학과 언어학을 모두 전공한 교원이 있다면 새로운 과목을 개설해 진정한 융합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문 간 연계성을 강화한 진정한 융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